

제423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청원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3일(목)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2.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백선영 외 50,1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1)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상정된 안건

1.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2
2.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백선영 외 50,1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1) 21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24

(09시37분 개의)

○소위원장 서범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청원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첫 회의인 만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간단하게 통성명 내지는 인사라도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 청원소위를 여시다니 아주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지난번에는 안 열었다면서요?

○서영교 위원 예. 아니, 청원소위를 여는 예가 많지 않은데 정말 좋은 의견들이 왔고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발현해서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을 상정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계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회의니만큼 수석전문위원께서 청원소위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차 다음 페이지 청원의 심사절차 및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원 의결 종류 및 절차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청원 내용이 타당하여 처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나 정부가 처리할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또는 취지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심사를 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원이 법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수고하셨습니다.

1.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09시40분)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먼저 듣겠습니다.

진술 시간은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량의 여지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지촌 피해자 김은희 씨지요?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예.

○소위원장 서범수 인사와 청원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안녕하세요? 저는 두레방에서 온 김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80년도에, 그러니까 제 나이 22살에 아들이 6개월인가 7개월 됐을 때 남편이 미군이었고 훈련을 가 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분, 언니랑 동두천에 놀러 갔어요, 아기는 아줌마한테 맡겨 놓고. 그런데 놀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40대 넘는 분들이 저를 잡고 ‘검진증이나 뭐 있냐?’고 그래서 저는 검진증 같은 것은 없어 봐 가지고 ‘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로 얼른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를 성병관리소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가 캄캄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 불빛만 봐도 시골로 들어가는 것, 산도 있고 막 그런 거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2층의 방에 올라가서 자라고 그랬는데 이불도 정말 요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좀 더럽고 그런 데에서 누웠어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잡혔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하룻밤을 잤는데 9시 돼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래요.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날 봉고차로 잡아간 분들하고 나랑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이렇게 침대에, 거기 그분이 이런 의자 같은 데 앉아 계시고 페니실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길어요. 하얀 것, 우유보다 진한 그것을 한 대씩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 맞을 필요 없고 성병도 없고 미군하고 결혼을 해 갖고 몸도 안 팔았고 이것은 놓지 말라고 했는데 대라고 그래 가지고 엉덩이 까고 맞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얼마나 아픈지 아기 낳을 때보다 더 아픈 것 같았어요. 그게 1시간도 더 넘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나 다음에 맞은 언니는 그분도 나이가 좀 드셨는데 그것 맞다가 기절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침대에다 이렇게 놓고, 여기 모서리가 양은 같은 것으로, 쇠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얼굴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사를 맞아서 진짜 아픈데 그 언니 여기 얼굴 다치면 어떡하나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해 줬어요. 그런데 내 손이 그 쇠하고 부딪히니까 내 손도 아파 가지고 얼른 뺐거든요. 그래서 내가 팔을 이렇게 해 줬어. 그랬더니 팔은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 언니가 명이 이렇게 들고 또 그다음 날에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거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임신도 안 된대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아, 그런가?’ 그러고. 그런데 남편이 독일로 파견이 돼 가지고 제가 독일로 갔는데 저는 임신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온몸이 막 아파 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큰 병원에, 미군부대 병원에 갔는데 애가 유산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마 그 페니실린 맞고서는 그렇게 된 건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내가 성병관리소 가 가지고 페니실린 맞았다는 말도 못 해요.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것을 알면 난리가 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담고 말을 안 했고, 또 임신을 했는데 또 애가 두 번째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한 번 여기 안을 좀 보재요. 그래서 안을 봤는데 나팔관이 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독한 주사 맞았냐고. 그분이 성병에 대해서 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의사는 비밀로 해 줄 것 아니냐고, 제발 내 남편한테도. 그랬더니 알았다고, 말 안 한다고

약속한다고 얘기하래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나팔관을 녹여 가지고 임신이 안 되는 거래요. 제가 딸을 하나 낳고 싶었는데.

그리고 성병관리소에 있는데 제 아기를 봐준 아줌마가 계셨는데 성병관리소에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 아들이 나를 보니까 엄마 알잖아요. ‘맘, 맘’ 그러는데, 저기 우리 아기 왔는데 나 좀 나가면 안 되냐고, 안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내가 4일을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4일만 봐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가서 아기 데리고 그랬습니다.

저도 성병관리소에서 있었던 일이 어떨 때는 잠자기 전에 확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오다가도 확 깨요.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성병도 없는데 그 독한 페니실린을 나한테 놔주고 아기도 못 낳고……’. 다행히 내가 일찍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애가 있었던 거고 안 그랬으면 저 애도 없었을 거예요. 그 언니들 말이 맞는 거예요, 임신도 못 하고 그렇다는 게.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였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말씀은 다 하셨습니까?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지춘피해자 김은희 그리고 동두천의 성병관리소 거기는 제가 증거고 증인이예요. 그래서 그 성병관리소를 없애지 말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가 이렇게 안정이 돼 있지도 않고 누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또다시 우리나라가 가난해지면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우리 여자들한테 몸 팔게 할 수도 있어요. 저 다 검색해 봤어요, 박정희가 그랬다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성병관리소를 보존해 가지고 후세에도 그런 것을 남기고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이 발언을 하는 것도 하나도 창피한 거 없어요. 어차피 내가 겪었던 거고, 그다음에도 제발 성병관리소를 보존하게끔 도와주세요.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지춘피해자 김은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서영교 위원 선생님만 오신 거예요, 아니면 몇 분 같이 오신 거예요?

○기지춘피해자 김은희 몇 분 오셨어요.

○서영교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어떻든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것을 전체회의로 보낼지 그다음에 본회의로 보낼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이게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본회의로 상정할 수도 있고 부의할 수도, 아니면 계속 심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서영교 위원 어떻게든 오늘 오신 목적이 우선 이런 것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시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본인 아니면 그 당시에 있던 피해자 분들께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취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배상이 있으면 좋겠고 성병관리소는 역사적인 흔적이니까 그대로 두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든 요점 사항이시고 같이 오신 시민단체 분들의 요구 사항이 그런 거지요?

○기지춘피해자 김은희 예, 그런 거예요.

○서영교 위원 지금 여기 같이 오신 분들은 누구세요?

○소위원장 서범수 지금 밖에 나가 있지요.

○서영교 위원 밖에 계시고.

○소위원장 서범수 진술인만 들어오도록 했으니까.

○서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성병관리소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이 추운 겨울에도, 거기 전기도 없어요, 거기서 주무시고 그 성병관리소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일요일이라서 안 나올 거다 했는데 새벽 3시에 나와 가지고 부수는데 그분들이 누워 가지고, 그래서 포크레인이 그냥 나갔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김은희 님은 며칠간 거기에 계셨지요?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일주일이에요.

○소위원장 서범수 일주일 계셨습니까?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예, 화요일 날 가서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김은희 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여러 분,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듯해 보이는 웬만한 여성들은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저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성병 검진을 해서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나같이 봉고차에 그냥 강제로 끌려온 사람은 성병 검사도 안 하고, 성병 검사를 해서 성병이 있어야지 페니실린을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나랑 같이 봉고차에 끌려온 사람들은 그대로 맞았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검사도 안 하고?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예, 검사도 안 했어요. 저는 진짜 거짓말 없이 이것 맹세합니다. 아니, 왜 성병 검사를 안 합니까?

(카드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날 이 카드만 갖고 갔어도 성병관리소는 안 갔는데.

○서영교 위원 그 카드가 뭐예요?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미국 사람,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방부에서 주는 건데 제가 그날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안 가지고 갔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성병관리소에 김은희 님을 데리고 간 사람들 신분은 아십니까?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성병관리소에 내려 주고 그 사람들은 그 차 타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볼 경황도 없었고 ‘왜 나를 잡아가냐. 왜 나를……’ 내 걱정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도 안 나요.

○서영교 위원 1980년이에요?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아니……

○서영교 위원 몇 년도에……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80년도예요.

○서영교 위원 80년이면 계엄 상황이었구먼.

몇 월이에요?

○기지춘피해자 김은희 봄이었어요.

○서영교 위원 봄.

○기지춘피해자 김은희 이것만 있었으면 성병관리소 안 잡아갔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겠네요.

○기지춘피해자 김은희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집에 두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는데 제가 성병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몸 파는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강제로 페니실린을 맞고 애를 두 번이나 못 갖고 평생을 임신 못 하고 피임을 해야 했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임신을 하면 나까지 죽을 수가 있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지금 김은희 님 연세가 한 68쯤 되겠네요?

○기지춘피해자 김은희 68. 대부분 언니, 이모들 보면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가 좀 어려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겪었던 것, 거기서 주사 맞고 있었던 것을 지금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때 한 방에 몇 명쯤 있었어요? 좌우 침대……

○기지춘피해자 김은희 한 방에, 그러니까 6개가 있었어요. 방이 6개 있었고 아래층에 식당, 아래층에 주사 맞고 목욕탕 있고 그런데 한 방에 10명도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 그렇게 더러운 이불 처음 봤고, 사람 딱 1명 자면 그 옆에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 방 하나에 사람이 다 꽉꽉 차 가지고 한 12명 됐어요. 그런데 방이 6개 있었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이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청원소위가 열리게 된 것도 본인의 역할이 크신 것 같고……

○기지춘피해자 김은희 아니, 저도 이렇게 드러내니까 기분도 좋고 국회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또……

○서영교 위원 국회에 와서, 저희들이 들은 것으로 그동안 마음에 아팠던 것들을 조금 털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기지춘피해자 김은희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인 동두천시 김우정 복지문화국장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간단한 인사말씀과 청원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동두천시청 복지문화국장 김우정입니다.

이렇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구 성병관리소와 관련한 동두천시 현실과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앞으로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 성병관리소와 관련해서는 동두천시가 지난 20년 이상 추진해 온 노력과 해당 사안이 지역의 생존권 확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개발과 미래세대를 위한 동두천시와 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안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미군 기지촌의 역사와 성병관리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 국가들의 지원하에 민주국가를 수호할 수 있었으나 정전 상태로 끝나면서 전국에 미군이 주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부대 의존 형태의 각종 소비재와 금융, 주거, 서비스 산업들이 이루어지고 전국에 36개소의 기지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성을 매개로 한 직업여성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성병 감염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격리시설이 운영되었습니다. 동두천에도 성병진료소와 성병관리소가 있었으며 성병관리소는 1972년 민간 소유 부지에 신축되어서 1995년까지 운영하다가 1996년에 기능이 폐기되어 1997년 건물이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현실과 지역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동두천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미군의 주둔지로 시 전체 면적의 42%를 공여하였고 현재에도 반환받지 못한 공여지가 전국 미반환 공여지 총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 개발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3243억 원, 1952년부터 2011년까지 총 60년간 19조 4587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부대를 반환하지 않은 채 병력만 평택으로 이전하여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던 부대 주변의 상권이 붕괴되고 인구공동화 현상과 도시 개발 지연으로 낙후된 도시의 정주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세원 감소, 높은 실업률, 고용 악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소요산관광지 입구 부지 일대를 1987년 5월 달에 도시관리계획상 소요유원지로 지정하고 1999년 유원지 조성계획 세부시설에 구 성병관리소 부지를 호텔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동두천시의 대표 관광지인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또한 매년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두천 록 페스티벌, 왕방산 MTB 대회, 소요단풍제 등 행사 및 국제 친선 교류 등을 위해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동두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을 찾는 방문객과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은 전무합니다. 더욱이 가용부지가 없는 시에서는 소요유원지 개발계획에 맞춰 호텔 등 숙박시설 조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어 부지 개발을 위한 구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며 동두천 시민들의 장기간 동안 반영된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해당 건물을 존치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의 의견이 있었다면 그동안의 도시계획이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2000년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지난 2023년 해당 토지를 협의로 약 29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으로 2023년 11월에 동두천시는 소요유원지를 포함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소요산 확대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4년 4월 달에 TF팀을 구성하여 24개 단위사업을 9개 부서, 10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성병관리소 부지는 소요유원지 조성계획상 미개발된 마지막 부지입니다. 소요산 확대개발사업과 연계한 가장 핵심적인 부지입니다. 이곳에 테마형 상가시설, 호텔, 전망대, 카페 등 기반시설이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구 성병관리소 부지 정비를 위해 2024년, 작년 7월 달에 건물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철거 예산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10월 달에 철거 공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건물 철거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저지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달에 동두천시 40여 시민사회단체가 건물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의 저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공동대책위를 발족시키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서 철거 방해 즉각적인 중단과 시민이 원하지 않는 타 지역 시민단체의 철거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과 더 이상 동두천 시민은 과거 상처에 얽매어 살아갈 수 없다며 성병관리소 철거는 동두천시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기지촌 성매매 피해자 쉼터인 새움터의 여성분들도 ‘우리는 동두천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낙검자 수용소를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단체들은 왜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나?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그곳, 소요산 성병관리소 근처에도 갈 수 없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공개하며 낙검자 수용소 보존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를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우리를 위한다면 낙검자 수용소는 철거하고 우리도 갈 수 있는 다른 공간에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소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2년 5월 설치된 성병관리소는 성병에 감염된 환자를 별도로 격리하여 치료하는 시설로 경기도 내에는 총 21개의 성병관리소, 성병진료소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현존하는 유일한 건물은 아닙니다. 성병진료소와 관리소는 경기도에만 파주, 의정부, 평택에 5개 건물이 과거 건축양식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2023년 경기도 비등록 문화유산 실태조사에서도 건축물은 거의 방치되어 보존 시 상당한 비용 소요가 예상되니 건물을 보존하기보다 비석 등을 세워 사진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는 정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성병관리소는 28년간 관리가 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면서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 및 무단출입에 의한 범죄 발생 가능성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어 시에 관리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달에 건물 철거 반대 단체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청원한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경기도 문화유산 임시지정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경기도지사님께서 건물소유자인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물 철거 반대 단체와의 이해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동두천시는 구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데요. 반면 건물 철거 반대 단체는 구 성병관리소 건물을 보존 개발하여 국제 여성평화인권박물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달에 건물 철거 공사를 추진하는 도중에 철거 반대 단체의 공사 방해로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12월 12일 날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단체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구 성병관리소 건물과 관련해 철거 및 보존 개발에 대한 상호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합의점과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반영해서 금년도 2025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제 3차 대화협의체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서 나고 자라며 삶을 영위해 왔던 세대의 대부분은 기지촌 사람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모멸감과 수치감으로 살아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소는 동두천 시민들이 기억하기도, 대면하기도 꺼리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등록된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철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구 성병관리소의 보존 상태나 역사적 가치로 보아 존치보다는 별도의 방식으로 기록을 보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국가유산청도 문화재로서의 등록을 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동두천의 의견이 우선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성병관리소 철거와 시의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은 동두천 시민들의 염원과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이는 동두천시의 고유한 자치권에 의한 주민 의사를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동두천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과 피해자를 포함한 동두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입장에 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달희 위원 경기도가 지역 주민들의 대타협점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게 지방의회일 텐데 동두천시의 시의원 다 몇 분이십니까?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총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달희 위원 7명입니까?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이 일곱 분의 정당 소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민주당이 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한 분이십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3명·3명·1명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정당 구성으로 돼 있네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비례는 어디예요? 3 대 3에다 비례 1명이라면서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국민의힘……

○서영교 위원 그러면 4 대 3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이달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시의회 일곱 분의 의견도 나뉘어져 있습니까?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당을 초당해서 시 전체, 동두천시가 사활을 걸고 하는 게 소요산관광지 개발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이 성병관리소는 일단 철거해서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게 시의회의 의결사항입니까?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대화협의체에 민주당 의원님 한 분이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의원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대화협의체 총 20명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찬성하는 쪽인가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철거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열 분이 계시고요.

○이달희 위원 반반 구성은 됐어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그리고 철거를 찬성하시는 공동대책위원회가 다섯 분 그다음에 시의원 두 분 그다음에 저를 포함한 시 관계 공무원이 3명 이렇게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장철민 위원 대화협의체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저희가 대화협의체는 현재는 4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성병관리소가 철거돼야지 온천공 굴착공사, 거기가 호텔 부지기 때문에 온천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하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관리소가 철거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월 정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를 한다는 게, 어떤 의제로 뭐가 마무리가 돼야 정리가 되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그 의제로 뭐를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대화협의체?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세 가지로 되는 거지요, 하나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보존,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하는 철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른 대안. 저희 시에서는 다른 대안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분들이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일차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이차 소요산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PT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의제나 진행 과정에 조금 다른 게 있으면 계속 대치 상태로 죽 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진전이 있습니까?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처음에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착공을 했을 때 시민 단체들하고 그쪽 저지하는 단체하고 충돌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대화협의체를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얼굴 알면서 많은, 어차피 다 지역 분들이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

기는 하지만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저지하는 분 중에서도 동두천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도 있고 저희 쪽에서도 공무원 중에서도 보면, 저도 동두천에서 태어나서 동두천에서 생활을 다 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문화적·생활적 공감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지속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나중에 심사할 때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거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저지하는 분들 구성이 10명이라는데 이 구성에 동네, 마을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열 분 중에서 한 세 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세 분 정도는 마을 분이고 일곱 분 정도가 시민단체나……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타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서영교 위원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고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그리고 성매매 관련해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런 쪽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서영교 위원 시민단체 분들이시고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시민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거기서 준 자료인가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저희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안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성병관리소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빨간 지점입니다.

○서영교 위원 붉은 곳.

소요산 관광 개발이…… 소요산이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그렇지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큼니다.

○서영교 위원 어마어마하게 크고 성병관리소는 그중에 아주 일부일 텐데.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저기 구석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새로 건립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우선 한 가지는 말씀처럼 이렇게 대화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고, 그런데 저는 그 마을 주민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기념비적으로 두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위로하고 사과하고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고 그러면서도 마을은 좀 더 나은 형태로 가고 이러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낀 게, ‘소요산 관광, 우리 소요산 개발해야 합니다. 관광 개발해야 합니다’ 이게 약간 안 맞는 거지요, 한쪽은 아픈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많은 데서 굳이 여기다 관광호텔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호텔 부지를 굳이 거기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누가 개인이 그 땅을 산 거예요, 아니면 이게 동두천시 땅이에요? 여기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원소유자는 학교법인 신흥재단 토지였습니다. 저희가 73년도에 토지를 무료 임대 받아 가지고 건물을 양주군 시절에 양주군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요 운영을 해 오다가 96년도에……

○**서영교 위원** 제가 묻는 말씀만……

그러니까 이게 동두천에서 여기가 아니면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소요산 개발이 필요하고 저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이해하겠는데 이 많은 데서 거기를 꼭 집어서 해야 되는 게 있느냐 이런 거지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9년도에 소요유원지의 호텔 부지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교 위원** 호텔 부지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충분히 바꿀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동두천에는 호텔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 호텔 부지가 충분히 만들어질 텐데, 성병관리소라고 하는 것을 더 좋게 예쁘게 아름답게 해서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이 되면 되는데 하필 그걸 빼서 거기다 호텔을 짓겠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거기 말고는 방법이 없냐 이런 말씀이에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소요산관광지, 저희가 저기 말고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거기를 호텔 부지로 하고 그 위쪽으로는 또 다른 유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명 이상 저기 할 수 있는 큰 숙박시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신흥재단으로부터 받아서, 거기가 그 땅이기 때문에 그걸 받은 것에다 호텔을 짓겠다 이렇게 상정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그 땅이다 이거지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그게 소요유원지 조성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부터 계획에 있던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동두천시에서 신흥재단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까?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2023년도 2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돈을 주고 구입한 건가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29억인가 주고……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29억 주고.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소요산 관광 개발, 소요산의 개발 이런 건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꼭 집은 것은 거기다가 호텔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돼 있다 이거지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현재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장철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성해서 다시 매각을 하든 분양을 하든, 시는 분양은 못할 것 아니에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민자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장철민 위원 민자 유치해서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장철민 위원 지금 그게 애기된 게 있어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현재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장철민 위원 구체적으로 애기 없는데 일단은……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지금 도면에 보시는 모든 부지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한 부분이 그 지역입니다.

○장철민 위원 예를 들면 나중에 사업성 문제가 있거나 행정적인 다른 문제가 있거나 해서 실제 호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철거하고 다 했는데, 관정도 파고 뿔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은 그 부담을 시가 다 지는 거잖아요. 이 논란을 막다 꺾어서, 사실 동두천시의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그런데 성병관리소 부지가요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결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핵심 부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의 소요내음공원부터 파크골프장—저희가 36홀을 정상적으로 만들 거예요—그리고 빙상장이 유치가 되면 그 지역이 다 연결되는 위치거든요, 그 자리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저도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성병관리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억의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서영교 위원 가치가 있지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보존하면서까지, 50년이 넘은 그 시설을 과연 보존할 이유가 있는지. 전국에 40개가 넘는 성병관리소가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철거가 됐고 그리고 모두 개발이 됐습니다. 왜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를 보존해야 되고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도 미군 공여지가 42%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두천시는 어떻게 보면 안보의 희생 도시입니다.

○서영교 위원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위로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가면서 동두천시와 전체가 같이 개발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꼭 집어서 ‘성병관리소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호텔을 지어야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로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보존하고.

아니, 이걸 그대로 꼭 봐야만 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면서 여기를 더 의미 있게 관리해 나가면서 호텔은 또 다른 형태로 가더라도, 파크골프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크골프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것을 꼭 집어서 파크골프장, 호텔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대화해 나가면서 잘 보존하고 상징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동두천시대로 발전시켜 나가서, 동두천시가 호텔을 지어 놓는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좋은 계획 속에서 동두천도 살고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대화하면서 만들 방법으로 찾아야지 지금 말씀처럼 한쪽…… 이해는 해요, 그동안 해 오던 건데. 그런데 꼭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가서 몸으로도 막게 된 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열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

각하고.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저는 시의원님들 정말 존경하는데 한 분도 어떤 그런 것이 없이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시의원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의원님들이…… 지금 고난받는 시의원님들 많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고난받고, 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동두천시는 절실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그거는 다 동의하신 부분이고.

토지를 매입할 때 29억, 적은 돈 아닙니다. 동두천시는 10억을 도청에 가서 받아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돈을, 29억을 투입해서 저희는 토지를 매입한……

○**서영교 위원** 동두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저희요?

○**서영교 위원** 예.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한 6000억 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앞에서 ‘10억 받아 오려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할 상황은 아니지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아니, 시의원님들이……

○**서영교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저도 한 가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 다 예산 따다 주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리면서 눈에 쌍심지 켜고 하면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대화를 잘 풀어 나가려고 해야지.

○**소위원장 서범수** 대화를 합시다.

대화협의체가 처음에 언제 구성이 됐지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2월 26일 날……

○**소위원장 서범수** 올해 2월 26일 날?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이걸 4월을 목표로 끝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건 너무 급한 것 아닌가요? 그것을 목표를 정하지 말고 대화…… 아까 서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서로 대화를 해서 이걸 윈윈 하는 형식으로 가 줘야 되지 그걸 4월로 딱 목표를 삼아서 ‘더 이상 안 돼.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해 버리면 그러면 서로 빠킹이 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결국 대화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철거가 되거나 보존을 하거나 아니면 제3의 대안을 만들거나 그런 목표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안이라고 하는 게 이것의 철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냥 만들어 낸다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거고 시가 지금까지 해 오던 일에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대안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는 더 안 하실 거고, 어차피 시는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대안을 만들 수 있거나 제안할 수 있는 주체도 되게 애매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지금……

○**장철민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보면, 예를 들면 국회에서나 여가부나 중앙부처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대안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제안을 하면 지금 시는 받아들일 의향은 있나요? 의지는 있으신가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제안을 해 주시면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는요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서로 함께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것의 기록을 볼 수 있는 표지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걸 운영을 하시면서 그게 다른 기관이 됐든 정부가 됐든 아니면 다른 제삼자들이 됐든 언제까지는 대안을 서로 내보자라는 그런 일정도 정하고 그거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래야 대화협의체도 생산적인 논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만나시거나 하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 근 2년이 넘었습니다. 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이 너무나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라면 지자체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공사 못 합니다. 사업 못 하지요.

○**장철민 위원** 저희도 지역구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그래서 하여튼 제안 주시면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최대한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청원은 보니까 국회에서 다룰 게 아닌데.

○**서영교 위원** 청원이 왔으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다룰 게 아닌데. 지금 여가부에서는 하실 게 별로 없잖아요.

○**장철민 위원** 정부에서 사과하는 정도의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 차원의 사과 요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 거는 그런 건데.

○**서영교 위원** 아니, 사실은 잘 소통해서 해 나가야지. 그런데 얘기를 들어 줘야지.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페이지입니다.

청원은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 반대 및 보존을 요청하고 기지촌 피해자에 대

한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단입니다.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거나 보존할지 여부는 동두천시, 경기도,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관련 시민단체, 동두천 시민 등과 소통하면서 지역 개발의 필요성과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가치 및 보존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는바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설득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기지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배상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기지촌 여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국가와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하였다는 원심을 확정하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기준 지급대상자 총 95명 중 90명은 지급 완료되었고 5명은 미수령 상태입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3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중이며 국가 차원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원할 뿐 기지촌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법이나 지원 정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국가배상 외에 기지촌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지 여부는 기지촌 피해자의 열악한 상황, 국가의 위법성 및 책임 정도, 다른 국가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기지촌 여성의 역사 보존에 대한 청원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자분께서 오셔서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오늘 동두천시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면서 그 현장에 대한 주변 환경이라든가 개발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협의체가 양쪽에 10명·10명, 20명 해서 3차까지 진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요 안건이나 건의사항을 매번 도출하면서 동두천시에서 잘 논의를 할 의지를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출되는 경과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해결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저는 현장 답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 보니까 제가 동두천시민이라면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철거를 하고 정말 소요산,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다른 데 지으면 안 되나?’ 했는데 어느 산이든 주도로가 있습니다. 주도로의 들어가는 입구에 이 부분이 있어서 동두천시에서 관광지로 개발해서 새로운 먹거리, 성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부분은, 그 장소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여기 증인들 얘기 들으면서 우리 여성들의 아픔은 간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치유나 이런 거는 동두천시민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지촌의 성매매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어루만져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을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또 치유해 갖고 가는지, 그분들의 고통도 이 사회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동두천시에만 맡길 게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부분은 좀 만 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가지는, 그 현장의 건물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거는 동두천시의원들도 다 같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대화협의체가 이루어졌단니까 거기에 맡겨서 동두천시민들의 의사를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철민 위원** 이게 잘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말씀하신 대로 대화협의체가 진행이 되고 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면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철거해라. 보존해라’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만 제가 오늘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뭔가 대안적인 논의를 시도해 본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주체나 능력이 사실 이 대화협의체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든 아니면 국회나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든 뭔가, 물론 그것도 이 대화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겠지요. 그런 동의하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가부 차원에서 준비해 보는 게 어떤지라는 의견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의 상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민간인 학살 피해 지역이 저희 지역구에 있거든요. 한국전쟁 당시에 3000명 이상이 학살당하시고 파묻혀 있고 이런 데라 지금도 여러 가지 발굴도 하고 평화공원 조성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사실 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억을 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역사에 대해서 남긴다는 게 그 지역의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고 우리의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거를 그냥 지역에 맡겨 놓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서 하는 사업도 결국은 100% 국비로 하거든요, 좀 오랜 노력을 거쳐서. 사실 역사에 관한 일, 우리 공동체의 뭔가 치유와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우리가 전체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위해서든 대한민국을 위해서든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대안적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100% 국비 사업이나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 보고 또 그것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어쨌든 시 협의체나 동두천시의 시민들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일이기는 하니까 대안적인 검토를 뭔가 좀 도와주셔서 하신다고 하면 정말 국가가 직접적으로 뭔가 돕는 방식으로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국회 청원이라는 게 5만 명 이상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동두천 청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청원을 하신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미군 기지촌이 있고 이런 게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동두천만 유독 청원을 내서 이걸 보존을 하자라고 하는가 이거지요. 좀 차별화가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일단 동두천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계획하고 예산이 수립되면서 철거 준비를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당장에 급하다고 이렇게 청원인들이 생각하신 것 같고요. 이게 국민동의청원이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으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소위원장 서범수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해서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인지까지는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까 기지촌이 있고 그다음에 성병관리소가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라고 그러셨어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아까 성병관리소 6개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것은……

○소위원장 서범수 지금 현재 보존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지금은 하나도 없고 동두천에만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동두천에만 있습니까?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예, 건물이 다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다른 데는 없어진 게 언제예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그것은 언제 없어진 지는……

○서영교 위원 그런 걸 좀 해서, 말씀처럼 ‘다른 데하고 왜 다르지?’ 이런 거……

○이달희 위원 그래, 그것을 다시 정리를……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다른 데는 별문제 없이 아예 정리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예.

○소위원장 서범수 언제, 어떻게, 왜 정리가 됐는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까 장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동두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전체를 살펴보고 그때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도 동두천시에만 맡길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조금 개입을 하셔서 독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 내더라도 좀 개입을 해 주셔야 된다. 제가 보니까 대화체가 지난 2월 달에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만나는 정도의 형식만 내고 동두

천시가 ‘우리는 만났습니다.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어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가부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보존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보존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해서 여가부에서도 대안을 마련을 해서 그쪽으로 던져서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가부의 역할이 없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현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 소유주는 동두천시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의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두 차원에서는 갈등 예방·해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단 시에서 알아서 하는 쪽의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런데 이쪽 협의를 하고 이쪽 입장 있잖아요,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입장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이런 것은 파악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입니다.

지금 입장이 다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두 입장은 너무 팽팽한 상태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중재하려고 하면 저희 부에서 할 수 있는, 기지춘에 대한 어떤 근거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현재 저희에게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그것을 보존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약간 기념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게 법적 근거가 저희 부가 개입해서 이것을 했을 때 여기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데는 좀 제약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 지역에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는데 다 싫어하잖아요, 가기도 싫어하고. 그런데 거기를 이름부터 바꿔서 망우역사문화공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관광…… 그런데 우리는 호텔을 만들거나 파크골프장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 역사 기억의 공간을 70억을 따다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지요. 그래서 3·1절 기념식은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에게는 예를 든다면 그 공간에 묘소,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있고 유관순 열사의 분묘가 있고 거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항상 거기서 해요.

이게 망우리라고 하는 이름도 주민으로서, 나는 이해는 해요. 그래서 주민으로서 망우리를 없애 버리자 그래서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망우리는 일제 때, 그래서 역사를 다 뒤졌다니까. 태조 이성계가 망우리라고 이름을 내었는데 일제가

와서 망우리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 그것을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고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바꾸고, 그리고 거기 만해 한용운 선생님부터 다 있어요. 한 100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묘소를 관리하는 마을 주민까지 넣어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가 완전히 명소로 바뀌는……

그런데 제가 아까 들으니까 저도 몰랐지만 호텔, 놀이공간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좀 더 의미 있게 관광 명소로 하되 아름다운 잔디면서 사람들이 와서 기억도 하고 여유도 가지면서 사랑도 하고 위로도 갖는, 이렇게 간다면 서로가 윈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윈윈을 찾았는데. 그렇게 조언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그래서 이쪽 분들에 대한 마음을 치유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그동안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어차피 역사적으로 남겨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나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가부가 법적으로 찾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안전이거든요.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협의체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여가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감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지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배상 촉구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기지촌 피해자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대단히 불편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가부 같은 경우에 지금 로데이터가 별로 크게 없어요. 뭘 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어보면 ‘이제 파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가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대화협의체를 해서 양쪽 찬성과와 반대파가 있겠지만 여가부 입장에서는 보면 반대파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심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저는 여가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가부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여가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도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청원소위를 언제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화협의체…… 그 대화협의체를 너무 딱, 내가 아까도 동두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4월을 목표로 해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여가부에서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이 안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백선영 외 50,1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1)

(10시41분)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1쪽입니다.

청원은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여성에 대한 증오를 동기로 하는 여성혐오 범죄는 별도의 법적 정의 없이 성범죄, 성매매,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건별 범죄 유형에 따라 개별법에 포섭되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사법체계 내에서 여성혐오 동기는 양형기준 판단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요청 사항과 같이 여성혐오적 동기가 포함된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에 포함하고 여성혐오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성혐오 범죄의 정의 및 가중처벌을 법에 별도로 규정할지 여부는 여성혐오 범죄의 특정 가능성,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현행 사법체계와의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혐오의 감정은 주관적이라 입증이 쉽지 않고 혐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가중처벌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등 혐오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른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범죄 처벌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현행법 체계에서는 범행 동기를 가중처벌이 아니라 양형 조건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13쪽입니다.

법무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상의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행 양상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여성혐오 및 여성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청원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현행 법체계와의 그러한 조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된 경우에는 청원의 취지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여가부에서 관계부처 등과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사실 발의가 된다고 해도 법무부가 주도하는 사안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가위로 청원이 넘어온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약간 경계에 있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서, 이게 법사위 청원인지 여가위 청원인지 혹시 판단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이게 법무부와 여기, 그러니까 법사위랑 여가위 사항의 경계가 약간 애매한데 민원 주관 부서를 고려하는 부서에서 그 시점에 법사위가 한참 너무.....

○**장철민 위원** 복잡해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그런 상황을 배려해서 여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 피해자 보호 관점이라든가 이러면 되게 명확해지는데 이게 범죄 관련해서는 나중에 입법 논의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은 법체계, 형법체계에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여성혐오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면 명확하게 저희 건데 약간 애매해 가지고 여쭙본 거였거든요.

○**소위원장 서범수**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뭐예요? 여성혐오 범죄 방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촉구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해 달라는 거지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일단은 상대방에 범죄를 이렇게 할 때 무슨 보복을 한다든지 어떤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다든지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데 순전히 여성을 혐오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소위원장 서범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지, 아니면 혐오 범죄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이 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에, 성폭력범죄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데 더 가중적으로 처벌을 해 달라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청원인이 언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혐오 범죄를 정확히 정의하고 가중처벌을 어떤 법의 형식이든 개정이든 제정이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거론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처럼 여성혐오 범죄가 많으니까 이것 환기시켜야 될 필요는 꼭 있고 그런데 꼭 여성혐오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혐오하거나 아니면 노인을 혐오하거나 그래서 타깃팅해 가지고 범죄가 일어나고 남성 중에서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든 착하고 선한 사람을 못된 사람이 타깃팅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 여성혐오 범죄 하던 것에 유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여성혐오라고만 하면, 이게 또 여성만 혐오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될 수 있으니 오늘 이것을 충분히..... 이것도 청원을 하신 분들과 상의를 해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올라왔지만 어떤 제도적·법적 장치를 요청하냐라고 한번 더 물어봐 주시고.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특별히 이것만 넣기에는 그렇고, 이게 법사

위 범으로 간다면 가중처벌을 하거나 이럴 때 누구를 아주 이유 없이 타깃팅하고 저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러면 평상시에 했던 것보다 더 가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그것을 처벌 과정 속에서 넣는다면 그런 것을 이렇게만이 아니라 다 해서 넣고. 환기시키는 것은 이것은 청원이 들어왔고 여성혐오, 특별히 성적 혐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의미를 알리고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떻겠나 싶으나 청원한 분들의 특별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더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저도 그냥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의견을 좀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가중처벌 관련된 형사법적인 것은 저희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여성혐오 범죄라고 했을 때 이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성폭력방지법 같은 것들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청원에 섞여 있나 보던데 혹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서 여가부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용역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나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혐오 범죄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벌할 거냐는 것은 명확하게 법사위나 법무부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시책 마련하고 계획 세우고 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뭔가 연구와 조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가부가 해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청원을 저희가 입법적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것은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연구,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여가부에서 마련하고 그것을 이 청원에 대한 저희 논의의 결과로 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혐오 범죄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혐오 범죄가 뭐냐라는 정의부터 들어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혐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가 정부 내라든지 이런 합의가 있어야 그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어떤 실태조사 같은 것들이 없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혐오 범죄를 다룰 때는 어쨌든 법무부랑 같이 이것을 논의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일단 국내에서 정의에 대한 이런 부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해외에서 이런 혐오에 대한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조사·연구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논의가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여기 15쪽의 청원 원문을 보면 청원한 분이 꼭 법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여성혐오 어디, 어디 정확하게 법적인 조치보다는 온라인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주의를 촉구하면서 여가부 차원에서, 특히 여기 쪽 보면 이런 온라인상에,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청원 원문을 보면 이분들이 청원한 취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참고해서, 여기 보면 꼭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성혐오 범죄를 청산하자보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또 피해자 지원이나 성차별적인 이런 부분을 정책에 잘 녹여 내 달

라는 취지가 더 큰 것 같으니까 청원 원문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회 위원님께서 말씀한 청원 원문을 보고 거기에 여가부에서 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음 청원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이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8분 남았는데요.

○장철민 위원 그래도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이게 제일 관심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3번……

○서영교 위원 다 관심이 있었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3번을 해야 되나, 지금 시간이 딱……

○서영교 위원 그러면 3번은 이렇게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어차피 법안도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여야가 이것 가지고 정쟁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내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좀 더, 청원 했던 분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계속 심사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 내용을 법안소위로 올려서 청원 했던 분들을 한 번쯤, 사실 우리가 변죽 울리기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법안 심사할 때 그분들을 한 번 불러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어차피 우리 다 이야기하던 거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일단 3항은 상정하고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일단 먼저 상정부부터 하겠습니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10시53분)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의견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다음에 청원소위가 언제 열릴지 몰라서, 서범수 위원장님께서 아주 잘하셔서 열어 주셨는데 한 번 더 연다면 이 자리에 이 청원을 하신 분들을 한 번 오시게 해서 의견을 들으면 좋겠고.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이 되지 않는 사이에 우리가 바로 다음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저는 전체회의로 오시게 해도 좋고 소위에 오시게 해도 좋고, 그래서 저는 소위에 없지만 말씀을 좀 진정하게 들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법안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재반복되지 않게…… 외국인이 와서 소

녀상에 테러를 가하지를 않나 막 거기다가 이상한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나 할머니들에 대해서 모욕을 하지 않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벌금이 10만 원 이러니까 계속 이 일을 하고 그 일을 유튜브로 내보내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 같아요. 이 돈이 일본으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인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조사할 수 있다면 조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여가부나 전문위원님 다른 말씀 하실 게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금방 심사한 제3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법률안의 개정과 관련된 청원이고 관련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되므로 이 청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서 심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가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분들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서범수 서영교 이달희 장철민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기지촌피해자 김은희

동두천시청복지문화국장 김우정